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최 광 일

1. 서 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이다. 우리 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승리만을 떨쳐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될 수 있는것은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확고한 혁명신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가장 공고한 단결을 마련하시였다.

이 글에서는 당 제7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힘찬 투쟁을 벌리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일심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해설하려고 한다.

2. 본 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이것은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70여성상의 로정에서 당 제7차대회이후 5년간 우리 당과 인민이 헤쳐온 시련과 난관의 고비들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멸사복무의 려정을 곧바로 쉬임없이 걸어왔으며 우리 인민은 변심없이 오직 우리 당만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충성으로 받들어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당의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정립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히신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리념이 집대성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선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데 대하여》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최고정화를 이룬다고 밝혀주시였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견해와 관점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갈데 대한 주체의 원리를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데 대한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는 혁명사상으로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당의 정치리념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각이한 정치리념을 가진 당과 정권이 존재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된 나라,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주체110(2021)년 1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서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거둔 뚜렷한 성과를 총화하였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여 당규약에 규제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방식은 세계 그 어느 당에도 없는 조선로동당의 유일무이한 정치방식이다.

우리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뜻과 정으로 뭉치고 신념과 의리로 당을 받

드는것은 바로 우리 당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펼치고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오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어렵고 간고할수록 당의 두리에 더 굳게 뭉친 위대한 단결로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라는 사상을 새롭게 밝히신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역사적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불멸의 대강이 마련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이 펼친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성이 하나로 되어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되도록 하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일군들이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을 확고한 신조로 간직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6(2017)년 신년사에서도 일군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특히 전당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시고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당조직들과 일군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과 인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붙어 무조건 해내는 기풍이 확립되어나가게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12월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마치시면서도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는것을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주체109(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모든 당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래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관심속에 모든 일꾼들은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고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준비해나갈수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반영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도록 하시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믿고 내세워주신 인민들, 우리 당을 변함없이 굳게 믿어주고 받드는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온넋을 바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하늘길, 배길, 령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짙혀지는 곳마다에서는 수많은 현대적인 본보기생산기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주체105(2016)년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이 단연코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정해진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그날의 중대조치는 위대한 어머니당인 조선로동당만이 내릴수 있는 위대한 결단으로 력사의 한페이지에 새겨졌다.

뜻밖에 들이닥친 엄혹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함북도북부피해지역이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되였으며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낳은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재적인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2020년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의 과국적후과와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수호하였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였다.

태풍피해가 채 가셔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피해지역들을 몸소 돌아보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전설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심혈속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훌륭한 살림집들과 문화생활조건들이 수많은 일떠섰으며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찬가가 높이 울리였다.

참으로 조국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게 펼쳐지던 나날에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을 믿고 따르는 길에 행복한 생활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일관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그 실현에 장애로 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인민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국풍으로 고착되고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한층 더 두터워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다져놓으신것이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 전체 인민이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시고 한 평생 인민중시, 인민사랑, 인민복무의 길을 걸으시며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우리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거듭되는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고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세운 전쟁로병들을 적극 내세워주시며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속에 혁명전사들은 영생하는 삶을 받아안았으며 주체혁명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특히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우리 당의 익측부대로 억세게 키워주시였으며 근로단체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인민들의 마음을 값높이 헤아리시고 따듯이 품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은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마음을 당중앙위원회 프락에 한피줄로 이어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당조직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로 복종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당조직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조직하거나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그것이 일심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심중히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전당의 당조직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나가면서 진정으로 도와주고 참되게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우리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단합시켜나가는데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차별없이 품에 안아 참다운 혁명가로,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정과 믿음을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온 나라 인민모두가 총비서동지께 절대적으로 매혹되고 온넛을 바쳐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편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들의 사업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또한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적들의 온갖 이색적이고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강도높이 전개하여 우리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반제계급교양과 도덕교양을 사상교양의 주요내용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책동이 극도에 이르렀지만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공고화되게 되었다.

세계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시고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으로 차넘치고있다.

《최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신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국가활동의 기준으로 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어 조선은 인민의 나라, 일심단결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계의 한결같은 찬탄의 목소리이다.

3. 결 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로부터 5년간은 한나라, 한민족에게 있어서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기간이지만 이 나날에 우리 당이 인민의 존엄과 영광, 행복을 위해 이룩한 승리들, 이루어놓은 결실들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거대한것이다.

믿음과 헌신, 보답과 의리로 충만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가 튼튼히 다져지고 어떤 장애와 도전도 뚫고나갈수 있는 불가항력적힘이 축적되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이며 이 땅에는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피나는 그날이 찬연히 밝아오리라는것이 당 제8차대회와 더불어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이 나라의 민심이다.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마치고 낮과 밤을 아로새긴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전백승하는 당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실마리어 인민대중제일주의, 혼연일체